

초등생 10명 중 4명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사교육”



▲ 학원 밀집지역인 서울 대치동에서 학원 수업을 마친 초등학생들이 줄지어 서 있는 학원버스로 향하고 있다. 사진=khan.co.kr

지난해 한국의 초·중·고등학생 10명 가운데 8명은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40%는 학교 수업 외 하루 3시간 이상 공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교육부와 통계청 등의 각종 청소년 관련 조사 결과를 인용한 '2024 청소년 통계'에서 이 같이 밝혔다. 통계청과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평균 78.5%로, 1년 전보다 0.2%p 올랐다.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 86.0%, 중학생 75.4%, 고등학생 66.4% 순이었다. 전년 대비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각각 0.8%p, 0.4%p 높아진 반면 중학생은 0.8%p 낮아졌다. 주당 평균 사교육 시간은 7.3시간으로, 전년 대비 0.1시간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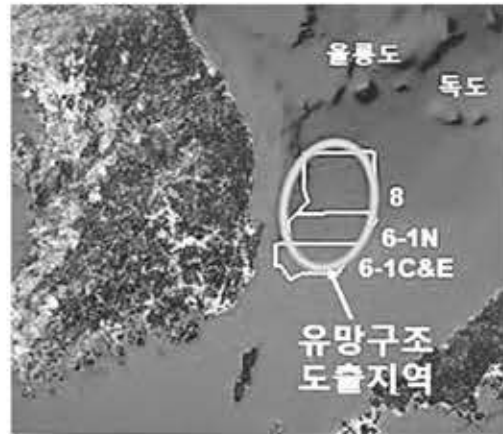
지난해 초등학교 4~6학년생과 중·고등학생의 40.2%는 평일 정규 수업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3시간 이상 공부한다'고 답했다. 이어 '2~3시간' 22.7%, '1~2시간' 21.0%, '3~4시간' 18.5%, '1시간 미만' 16.1%, '5시간 이상' 10.2%의 순이었다.

초등학교 4~6학년생과 중·고등학생의 73.6%가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 대비 0.2%p 높아진 수치다. 94.0%는 '학교 친구들이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고 느꼈고, 94.9%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존중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유국 되나” 부푼 꿈 ... 포항 앞바다 탐사시추

한국 정부가 올해 연말부터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석유·가스 탐사 시추에 착수한다.

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올해 12월부터 경북 포항 일원 동해 심해 유망구조 탐사 시추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탐사가 실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 추가 유망구조를 도출한다.



▲ 한국 정부가 발표한 경북 포항 일원의 동해 심해 유망구조 도출 지역. 사진=연합뉴스

포항 일원 동해 심해 유망구조엔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분할될 것으로 추정된다. 매장 예상 자원은 가스 75%, 석유 25%로 추정된다. 가스는 3억2000만~12억9000만 톤, 석유는 7

억8000만~42억2000만 배럴 부존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그간 축적된 동해 심해 탐사 자료를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미국 액트지오(Act-Geo)에 심층 분석을 맡긴 후 이 같은 결과를 통보 받았다. 5개월에 걸쳐 해외 전문가, 국내 자문단 등의 검증 과정도 거쳤다.

산업부는 연말부터 진행될 시추를 통해 부존 여부와 부존량을 확인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첫 시추 결과가 나오면 개발 계획 등을 만든다. 일반적으로 첫 탐사부터 생산까지 약 7~10년이 소요된다. 생산기간은 약 30년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첫 생산 시점을 2035년으로 예상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뚝' ... 매매로 돌아서는 세입자들

최근 한두 달 사이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월세 거래량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부족 우려 확대에 따른 전월세·매매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기존 임대차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선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일 '매일경제'가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 4월(계약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총 1만5442건으로 집계됐다. 전세가 9441건, 월세는 6001건이었다. 이는 2021년 2월(1만5018건) 이후 3년2개월 만에 가장 적다. 3월 거래량(2만1492건)보다도 6050건(28.2%) 줄었다. 4월이 비수기임을



▲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고려해도 감소폭이 크다. 지난해 4월 12.9%, 2022년과 2021년엔 각각 10.5%, 7.9% 줄어든 바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 넘게 오르고 있는 데다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차라리 내 집을 마련하자'는 심리가 퍼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 임대차 2법 시행 4년 차를 맞아 전셋값이 더욱 오를 것이란 우려도 매수세 전환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집주인들이 4년 치(연동분)를 한꺼번에 올려 전셋값이 더욱 치솟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돌려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Kyung Sook Yu, D.D.S

스페셜 교정치료!

최신형
3DCT Pano Can Ceph
설치 기념

\$3000
부터
(무료상담)

<개원 20주년 기념 스페셜>

크라운
(PFM)
\$600

잇몸치료
\$200 부터

틀니
\$1500

Free
임플란트 상담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 - 목 9am - 6pm

Imperial Hwy
S. Beach
● 유경숙 치과
예당식당